



여수 송기후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화순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최종 선정돼

### 화순읍 향청리 일대 국비 등 180억 들여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

화순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에 화순읍 향청리 일대 구도심지역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그 동안 평가위원들의 현장실사와 컨설팅을 거쳐 8월에 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 검증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달빛이 물들면 청춘남민이 꿈트는 화순'이라는 주제로 화순읍 향청리 일대 구도심지역(면적 137,300㎡)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창업·주거·문화 등

이 복합된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확보,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이라는 도시재생의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민연천 물빛공원, 마을골목길 정비사업 등 1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선정을 위해 공모신청 가이드라인 발표 전 지난 2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밝히며, "그 동안 신도심위주의 개발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화순읍 구도심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화순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암군, 결혼이주여성 정리

### 수업전문가 12명 배출

영암군은 지난달 30일 영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정리수업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결혼이주여성 정리수업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보유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공간정리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주거공간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수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정리수업전문가 양성교육은 주2회 3시간씩 총8시간 옷장, 주방, 냉장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리정돈 수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병행하는 과정으로 출석률 10%, 필기시험80%, 실기30%를 반영하여 자격증 취득을 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연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전통정원 지역특구' 지정 공청회

담양군은 전통정원 특구 지정 의견 수렴을 위해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전통정원 지역특구 지정 주민 공청회'를 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통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전통정원 인프라 구축과 전통정원 콘텐츠 확산, 정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주 내용으로, 전통정원 특구 지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담양을 국내 최초의 전통정원 특구로 육성, 소쇄원 등 별서 정원과 누정 등이 집중돼 있는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생태정원도시 구축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특구 위치와 면적, 특화사업, 공청회 일정 등을 공고했으며 오는 9일까지 사업계획안 열람 및 의견 집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군 의회 청취 등을 거쳐 특구 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전통정원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정원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시간여행 in 화순' 두 번째 공연 진행

### 오는 7일 능주면 역사관 일원서

화순군에서는 2018 문화가 있는 날 '시간여행 in 화순'이 7일 두 번째 시간으로 '화물 세상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후 6시부터 화순군 능주면 역사관(능주면 사무소) 일원에서 화려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여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시간여행 in 화순'이 7월 27일 첫 여행을 떠났다. 첫 공연에서 4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야간조명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렸다.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화순군이 주관하는 '시간여행 in 화순'은 메인 테마공연, 프린지 공연, 체험부스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6회)에 열리게 된다.

메인 테마 공연은 세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모티브로 화순의 역사적 인물인 '김삿갓과 가련', '충의공 최경희와 논개'의 이 루지 못한 사랑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토리로 미디어아트와 음악으로 전통 한옥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복합 음악극으로 7월 20:00~21:00에 공연하게 된다.

또한, 능주면 역사관 메인 공연장 주변에서, 프린지 공연이 19:00~20:00 까지 2회 열리게 되며, 포토존 인문학 이야기(문화해설사), 국악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을 갖는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18:00부터 열리게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암군 모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은상'

### 문화·복지분야 수상

영암군은 지난 8월 30일 대전 KT 인제개발원에서 열린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군서면 모정마을이 문화·복지분야(은상)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시군 및 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고 사업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 만들기 붐을 조성시키는 취지로 올해 5회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전국 3,000여개 마을이 참여해 시·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

쳐 최종 20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영암군은 콘테스트 참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평가 및 발표자료 작성, 퍼포먼스 준비 등을 통해 진라남도 대표로서 출전하게 되었고,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에도 지난달 27일부터 김환영 이사장 김창오 한옥마을 추진위원장 등 남녀노소 10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실내체육관 등에서 연습한 끝에 문화·복지 분야에서 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군서 모정마을은 사계절 축제를 비롯한 마을의 각종 문화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마을발전 비전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심사위원 및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모정 전통줄다리를 주제로 마을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열정적으로 퍼포먼스 무대를 펼쳐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감탄을 받았다.

전동평 군수는 "모정마을은 우리 영암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전통적인 충효사상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풍물놀이와 한옥체험, 마을벽화화 차문화, 연꽃축제, 봄이팝나무 축제, 겨울대보름 축제 등 다양한 축제문화를 맛볼 수 있는 창조적인 대화합의 마을"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영암의 농촌체험마을로 가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 도시관리공단 이관

### 주차장 30곳 · 봉황산 자연휴양림 관리업무



여수시가 9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업무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

공영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관 대상은 서교동 주차장, 화강동 주차장 등 유료 공영주차장 30곳이다.

이관일인 9월 1일부터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관리원 40명도 도시공단으로 고용승계됐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업무도 이날부터 도시공단이 맡았다. 휴양림관리원 10명도 주차관리원과 마찬가지로 공단으로 고용승계됐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통한 전문성 있는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공기업으로 여수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등을 맡고 있다.

여수=송기후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영광우시티**

장성군